

경기도, 수술실 폭언·인권침해 행위 막는다

공공의료기관에 CCTV 최초 설치

안성병원 수술실서 시범 운영
내년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
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촬영
이재명 “환자 인권침해 예방”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통제실 CCTV 녹화장치.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최초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 운영한 후 2019년부터 의료원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수술실 CCTV

는 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할 계획이며 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선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 13일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 등 6개 병원과 병원 노조의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안성병원은 올 3월 이전 신축 시 수술실별로 CCTV를 설치했으나 운영을 하지는 않고 있었다.

도는 수술실내 CCTV 촬영은 환자가 수술부위 촬영 등 개인 정보 노출을 우려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환자의 동의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주취자 폭력이나 인권침해, 의료사고 우려로 대부분 병원은 응급실에 CCTV를 설치했지만 수술실의 경우는 의료계의 반대로 각 병원 자율에 맡기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환자의 동의 하에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계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metroseoul.co.kr

경기도, 직불금 806억 조기지급

12월 지급서 3개월 앞당겨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는 매년 12월에 지급하던 직불금을 올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 전으로 앞당겨 오는 21일까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쌀고정직불금 7만9176명, 밭직불금 5만184명, 조건불리직불금 835명으로 총 13만195명이며, 쌀고정직불금 697억원, 밭농업직불금 107억원 등 총 806억원을 지급한다. 이번 에 지급될 직불금은 농가 소득안정 및 식량자급률 등을 위해 법정 요건을 갖추고 농지를 경작 중인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1ha당 지원 단가는 쌀고정직불금의 경우 평균 100만원이다. 밭고정 직불금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지원 단가는

전년대비 5만원이 상향돼 1ha당 밭직불금은 평균 50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지 60만원, 초지 35만원이다.

한편, 쌀고정직불금과 별도로 쌀값 변동에 따라 지급하는 쌀변동직불금은 내년 2~3월에 지급한다. 쌀변동직불금은 쌀 목표가격보다 수확기 평균 쌀값이 낮을 경우, 그 차액의 85%를 농가에 지원하는 직불금이다. 올해 쌀 목표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말까지 재설정할 예정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담양군, 추석 전 아동수당 첫 지급... 1인당 월 10만원

담양군이 오는 21일부터 대상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만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담양군은 지난 6월 20일 사전신청을 시작했으며 1536명의 대상아동 중 1481명이 신청했다. 신청률은 96%에 달한다. 8월 말 기준 대상아동의 76%인 1179



담양군청. /경기도

명의 보장결정을 완료했다. 300여 명이 소득·재산 자료 조사 중에 있어 신청자

수 대비 96%에 해당하는 1480여 명이 9월 중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9월 최대한 많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매주 조사 진행상황과 신청현황을 확인, 미신청자에 대하여 직접 가정방문 등 지속적으로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하며, 9월 아동수당은 추석연휴로 인해 21일 지급할 예정이다.

/전남 담양=봉태영 기자 bcy2020@



경기도 서유럽시장개척단이 파리밀레니엄 호텔에서 선전을 다지고 있다. /경기도

영국·프랑스 등서 329만달러 수출 성과

경기도 FTA 활용 시장개척단

도내 유망 중소기업 10곳 참가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시장개척단이 선전 서유럽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

경기도와 경기FTA센터는 지난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프랑스와 영국에 ‘서유럽 시장개척단’을 파견, 총 95건의 상담을 통해 329만 달러의 수출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서유럽 시장개척단은 도내 유망 중소기업 10개사가 참여해 11일 프랑스 파리와 13일 영국 런던을 연이어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비즈니스 상담회를 가졌다.

도는 수출상담을 돕기 위해 바이어 1:1 상담주선, 현지 시장조사, 1:1 통역지원, 상담장 임차료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참가업체들은 상담기간 동안

블꽃감지기, 스시김, 국소배기장치, 스마트폰필름, 가스누출검지기, 천연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소개해 바이어들의 좋은 반응으로 파리에서는 260만 달러의 계약 성과를, 런던에서는 69만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실적을 기록했다.

HACCP, ISO, 코셔, HALAL 등 다양한 인증을 내세워 현지 바이어들의 신뢰를 받은 광주의 진흥식품은 파리에서 가장 큰 식자재 업체인 Foodex社를 만나 2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진흥식품 주양윤이사는 “10년 전부터 거래를 하고 싶었던 바이어와 올해 안에 2만 달러 규모의 초도 계약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성남의 브에노메디텍은 화장품 강국 프랑스 전역에 화장품 유통채인을 운영 중인 MoshiMoshi社와 100만 달러 상당의 줄기세포 화장품 협상과 MOU를 체결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완도군-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 개국

전남 완도군과 수협중앙회가 전국에서 18번째로 완도에 어업정보통신국을 개국 했다.

완도어업정보통신국은 지난 14일 새벽 0시부터 어업인 안전 조업 지원을 위한 24시간 통신실 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어선법 개정으로 VHF-DSC(초단파대 무선전화)의 의무 설치 어선이 총 톤수 5톤에서 2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 됐다.

이에 따라 증가된 어선의 통신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 완도어업정보통신국이 개국하게 됐다.

완도군 군외면에 총 사업비 31억 6500만원을 투입해 대지 507평, 지상 2층 규모로 어업인 교육장과 안전체험관, 민원봉사실, 통신실 등을 갖췄다.

완도어업정보통신국 업무 구역은 완도군, 강진군, 장흥군, 해남군으로 ▲출어선 안전 지도 ▲한일, 한중 EEZ 조업선 관리 ▲해상 통합 방위 통신 ▲방재업무 ▲안전 조업에 관한 어업인 교육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전남 완도=김남중 기자

운영일 의원, 고향세법 대표 발의

해남·완도·진도

열악한 지방재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고향세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평화당 운영일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일반 국민이 고향 등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도록 하는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은 기부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

는 곳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 복지 확대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자체 내에서 생산한 특산물 등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경제활동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에 따른 세수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남 해남=김남중 기자 5555knj@

해남군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 ‘전남 최다’ 선정

전남 해남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2019년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에 전남 최다 규모인 13개가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사업 유형별로는 교육 컨설팅 10개소와 시설 장비 지원 3개소다. 이 사업은 50ha 이상 들녘의 규모화와

조직화, 공동 경영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 등 식량 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은 조직 관리와 경영, 자원 활용 방안 모색, 재배 기술 등 공동 작업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전남 해남=김남중 기자

평택시 정치인 명절 현수막 자제 ‘솔선수범’

불법광고물 일환으로 자제 요청

평택시가 명절 때마다 의례적으로 게시하던 명절 인사 현수막을 올 추석에는 각 정당에 자제를 요청해 지역 정치인과 국·도·시의원이 기꺼이 동참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시가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도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결과다.

그동안 시에서는 주요 도로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을 3개 권역으로 나눠 민간 위탁 3개업체,

기간제 3개반 등 상시단속반을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금년 8월 6일부터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해 골목상권 및 주거지역의 벽보, 전단지 정비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명절분위기가 나지 않을 까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불법광고물 근절에 예의를 두지 않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 주시는 정치인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경기 평택=이보현 기자 bhlee7777@